증권 다이제스트

키움증권

'키움 제999회 ELS' 출시

키움증권은 세전 연 5.5%의 수익을 추구하고 삼성전자 보통주,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출시했다. '키움 제999회 ELS'의 기초자산은 삼성전자 보통주와 KOSPI200지수다. 만기 3년에 예상수익률은 세전 연 5.5%이며 낙인배리어는 60%이다. 스텝다운 조기상환형 ELS로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5%(6개월), 90%(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5.5%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김유진 기자

하이투자증권

연 5.3% ELS 50억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4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768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EUROSTOXX)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5.9%(연 5.3%)의 수익을 지급한다. /손엄지 기자

신영증권

플랜업 지수형 ELS 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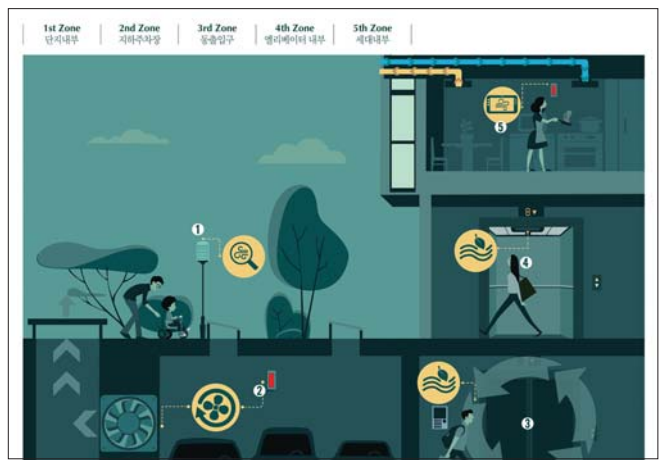
신영증권은 오는 10일 오후 1시까지 '플랜업 지수형 ELS' 2종을 판매한다. '플랜업 제7930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KOSPI200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형 ELS다. 6개월마다 돌아오는 조기상환 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 가격의 95%(6개월), 90%(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이상이면 연 5.1%(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김유진 기자

미스트 분사·헤파필터 적용 등 '공기청정 기능' 강화

"스마트한 아파트… 미세먼지 걱정 날려요"

대우건설 '5ZCS' 업그레이드
단지 입구부터 고객 동선 전체관리

대림산업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자동공기청정환기 시스템 등 갖춰



대우건설 미세먼지 차단시스템 '5ZCS' 설명도.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주요 건설사가 새 아파트에 미세먼지 차단·저감시스템을 적극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면서 쾌적한 아파트를 지향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

대우건설은 기존 미세먼지 차단시스템인 5ZCS(Five Zones Clean air System)를 업그레이드해 '뉴(New) 푸르지오'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5ZCS는 단지내 존(Zone)별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미스트 분사시설 설치, 헤파필터 적용 등 공기청정 기능까지 강화했다. 대우건설은 5ZCS를 향후 분양하는 단지에 기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분양을 앞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운정신도시파크 푸르지오' 등에 적용된다.

대우건설은 단지 진입부터 세대내부까지 단계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8월 단계별 미세먼지 차단기술인 5ZCS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5ZCS는 단지입구, 지하주차장, 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세대내부로 존을 구성해 고객의 동선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는 새롭게 정립된 비 프리미엄(Be Premium·Be Unique, Be Right, Be Gentle, Be Smart)을 구현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5ZCS은 브랜드 철학을 스마트한 기술로 실현시킬 상품이며, 더 큰 관점으로 주거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림산업도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에서 이달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을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곳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은 공기질 센서를 통해 자동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을 비롯해 미스트 분사 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식재 등 6단계로 구성된 솔루션이다.

각 세대별 미세먼지 제거와 실내 환기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을 적용한다. 특히 실내환경 통합센서와 실외 미세먼지 정보가 서로 연동돼 실내외 미세먼지·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 공기청정형 환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된다.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에는 0.3㎛ 이상의 극초미세먼지를 99.95%까지 제거할 수 있는 H13등급 헤파필터가 적용된다. 이 시스템이 스마트 렌지후드와 연동돼 요리나 청소, 취침 때까지 공기 질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자동 모드 시)시켜 준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기청정기로 집 안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는 있어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이산화탄소 등 기타 유해물질의 배출은 불가하다는 점에 착안, 환기와 공기청정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공기질 센서는 집 안의 유해 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환기장치를 작동시킨다.

각 동 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돼 미세먼지와 외기유입을 차단하는 등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블록별로 실내놀이터(6블록 제외)도 설치한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청주 도시재생사업 등 '현장경영' 나선 변창흠 LH사장

"노동자 안전교육 정기적 시행해야 추락사고 방지대책 실효성 강화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변창흠 사장이 8일 도시재생사업지구 및 공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변창흠 사장은 지난달 29일 취임식에서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로서의 LH의 역할과 함께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기반으로 주거복지·건설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LH가 추진하고 있는 청주 도시재생사업 및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주택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먼저 변창흠 사장은 청주 문화산업단지(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및 준공 일정 등을 직접 점검했다.

청주 문화산업단지는 옛 연초제조창 원료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후 2018년 4월 공사에 착수해 금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과거 국내 제1의 담배공장(면적 12만㎡)은 공예 클러스터 및 각종 체험시설 등이 조성된 '문화거점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변창흠 LH 사장은 "청주 연초제조창과 같이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쇠퇴한 구도심을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새롭게 재생하는 사업모델을 창출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현장 점검 후 변창흠 사장은 곧바로 세종 행복도시에 위치한 공공주택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건설현장 내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며 안전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변창흠 사장은 LH 및 시공사 직원들에게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시설물 점검을 꼼꼼히 실시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LH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특별 안전점검 등 사고 없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1만원부터 주택저당증권에 투자하세요"

KB증권-주금공, MBS 출시 MOU

KB증권은 소액투자자 대상 MBS(주택저당증권) 판매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MBS 개인 직접투자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 행사에는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MBS 투자자 저변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유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거액 자산가나 기관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MBS를 오는 27일부터는 KB증권에서 1만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박정림 사장은 "개인고객이 소액으로도 KB증권의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MBS 투자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SK건설, 亞太 혁신적 법률가 상 '3관왕'

SK건설은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가 주최하는 '201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혁신적인 법률가 상(FT Asia-Pacific Innovative Lawyer Awards 2019)' 시상식에서 1개 부문 수상, 2개 부문에서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총 3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

SK건설은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모델 보유기업(Innovation in Operations:New Business and Service Delivery Models)'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수상했다. 또 '최고의 혁신적인 사내 계약조직(Most Innovative In-House Legal Teams)' 부문과 '혁신적인 전문지식 보유(Innovation in Legal Expertise)' 부문에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국내기업으로는 SK건설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밖에 우버(Uber), 아시아개발은행(ADB),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 등 글로벌 기업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 등 국제 로펌이 포함됐다. /이규성 기자